

KISTEP 통계 브리프 2007-1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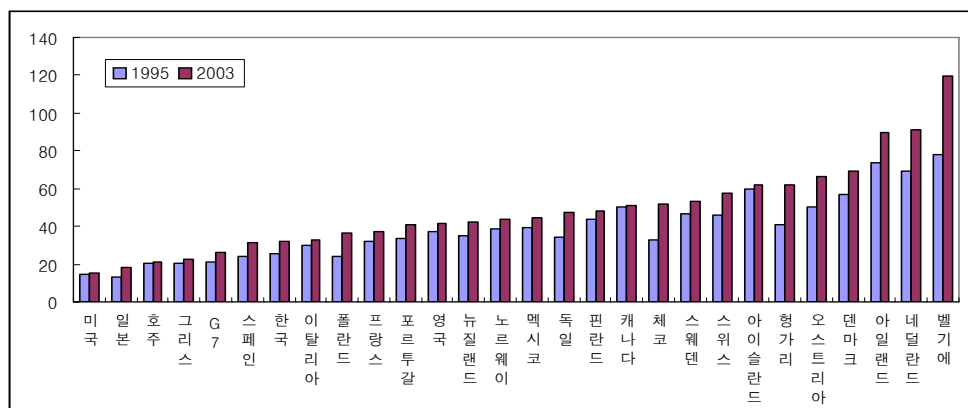
OECD 국가의 제조업 특성 변화 (III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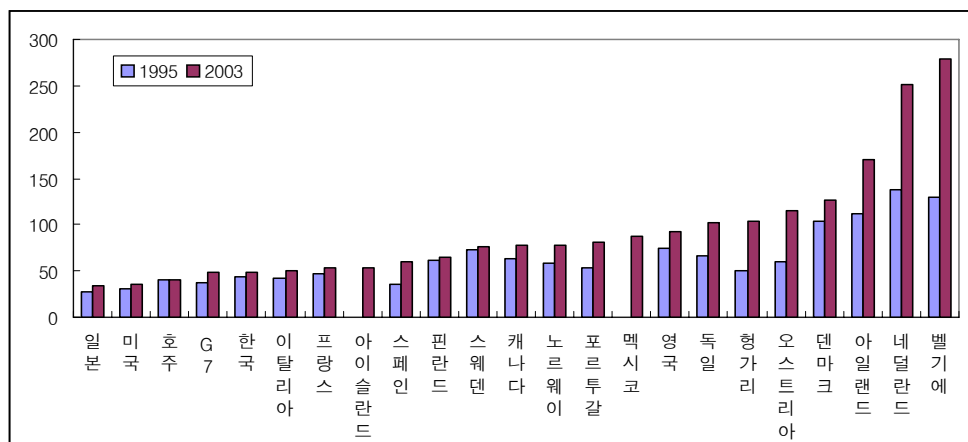
□ OECD 국가의 제조업의 국제화 추세

-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제조업의 생산대비 수출 비중은 95년에 비하여 2003년에 증가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제조업 생산물의 통합이 활발해짐
 -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는 제조업 전체에 비해 수출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임
- 동일산업간 무역¹⁾의 비중은 많은 국가에서 증가
 -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value-chain을 통한 제조업의 생산물의 통합을 가져옴
-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제조업 수출의 50%이상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(OECD 평균 66.5%)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제화가 활발함
 - 우리나라는 68.3%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

<그림 1> 제조업의 생산대비 수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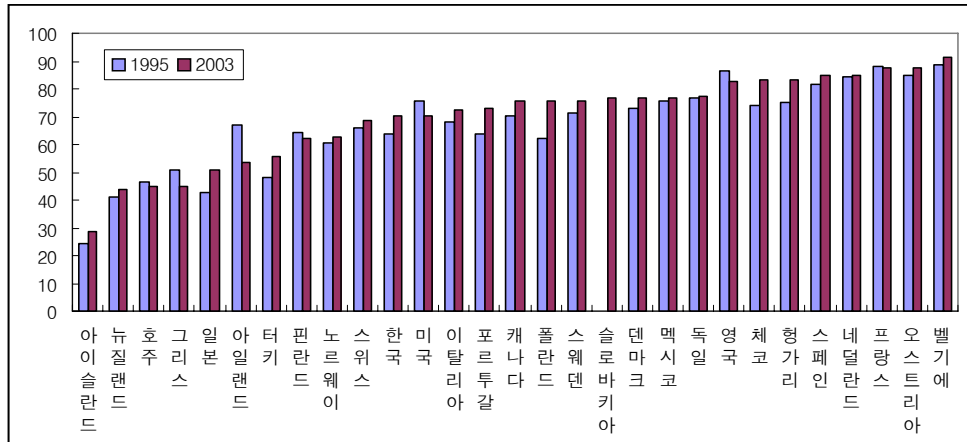


<그림 2> 하이테크 산업의 생산대비 수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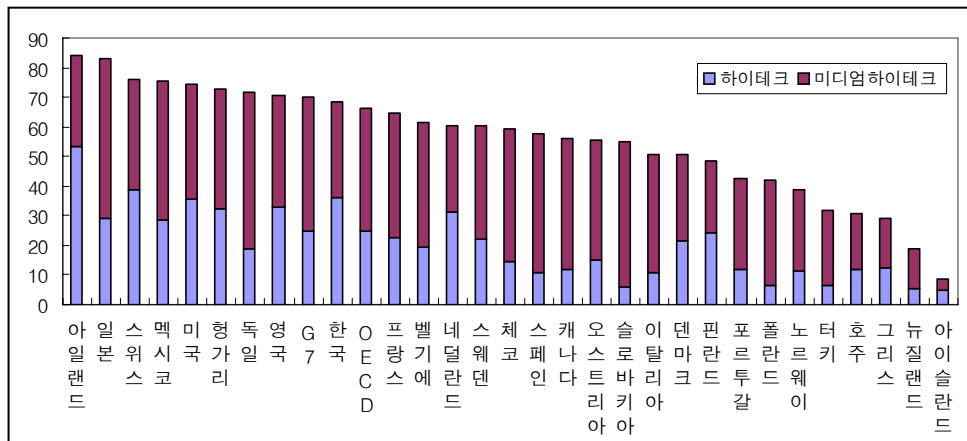


1) 동일산업간 무역(Intra-industry trade)는 동일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무역을 뜻함(OECD, 2005)

<그림 3> 제조업 전체 무역 대비 동일산업간 무역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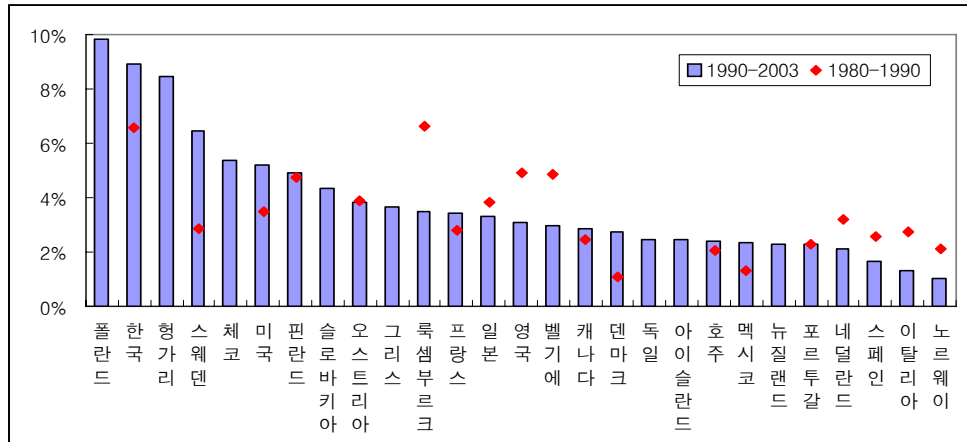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하이테크와 미디엄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 비중 (200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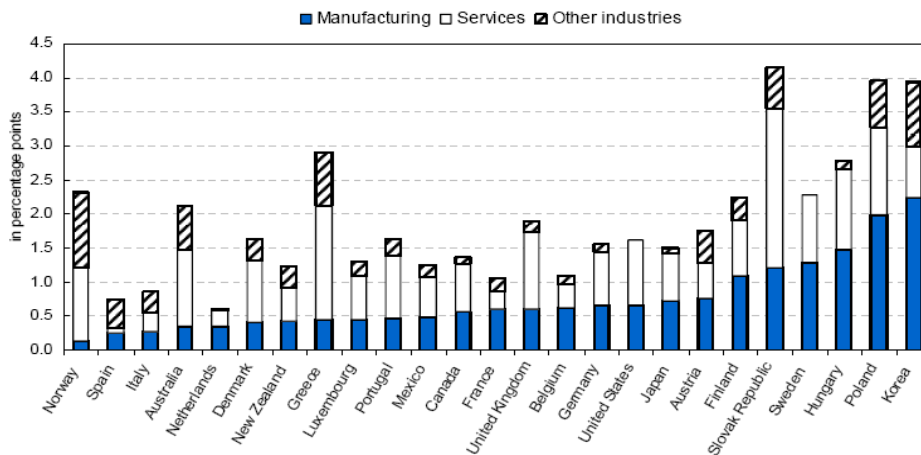
□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

-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세인 반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부분의 국가가 2%이상의 꾸준한 증가세이며 폴란드, 한국, 헝가리, 스웨덴등은 6%이상의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임
- 한국, 핀란드, 헝가리, 폴란드, 스웨덴등의 국가에서는 생산성의 성장에 많은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는 반면 호주, 덴마크, 그리스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영국등은 생산성의 성장에 적은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음

<그림 5>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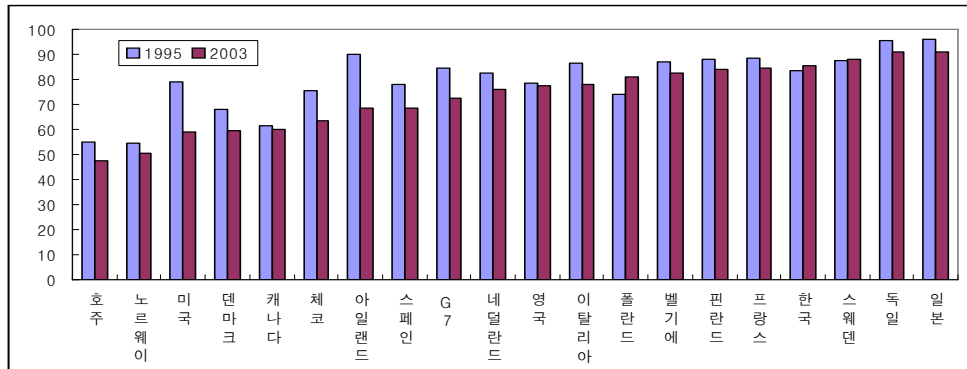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노동력 1인당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에의 기여도 (1990-200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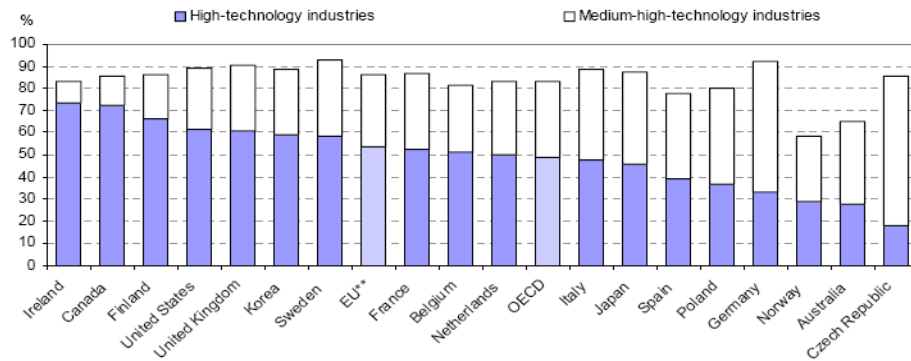
□ 제조업의 혁신활동

- 전체 산업대비 제조업의 사용연구개발비 비중은 많은 국가에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60%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- 제조업의 사용연구개발비 비중의 감소는 서비스 분야의 R&D 증가와 같은 여러 요소가 원인임 (Pilat, D. 등, 2006)
- 제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(하이테크, 미디엄 하이테크) 산업에 R&D 활동이 80-90%정도 집중되어 있으며, 캐나다, 핀란드, 아일랜드, 미국, 영국, 한국 등은 하이테크 산업이, 독일, 일본, 체코 등은 미디엄하이테크 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임

<그림 7> 기업 부문 사용개발비 대비 제조업 비중



<그림 8> 하이테크와 미디엄하이테크의 사용연구개발비 비중



□ 시사점

- OECD 국가의 제조업의 국제화는 가속화되고 있음
 -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증가 추세이며 제조업내의 동일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
 -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증가등 국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
- 제조업의 전체 경제활동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,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활동(R&D)을 주도하고 있음

* 자료원 : Pilat, D. 등(2006), "The Changing Nature of Manufacturing in OECD Economies", OECD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, 2006/9, OECD Publishing.
 OECD, STAN Indicators database, December 2005.

* 자료관련 문의 : 혁신지표팀 (02-589-2829, 2949, 2892)